

## 한방의료기관 근무 한의사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조사

황대선, 이경구, 신현규

한국한의학연구원

### A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Pending Policy among Oriental Doctors Working in Oriental Medical Institutions

Dae-Sun Huang, Kyung-Goo Lee, Hyeun-kyoo Shi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resolve various elements of conflict by present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to help build an enhanced oriental medical service system.

**Methods:** The researcher collected data from 12/15/2006 to 1/31/2007. A total of 1000 questionnaires were sent out to oriental medical doctors working at oriental medical facilities and the 15% (150 questionnaires) of them that were returned completed were analyzed.

**Results:**

1. As to the proper proportion of oriental medical doctors to western medical doctors, they said it should be less than 20%. About separating the task of prescribing oriental medicine (herb) from oriental medical treatment, 80.7% of them were against it. 98.7% said oriental medical doctors needed the control of medical technicians.
2. 72.3% said they had no intention of taking the U.S. NCCAOM board to practice oriental medicine overseas. A majority (57.7%) were in favor of unifying oriental medical license with western medical license.
3. Oriental medical doctors had greater job satisfaction [than all oriental medical doctors number]. If they were to choose another occupation than oriental medicine they would consider becoming a research fellow above all other occupations. If they were to reenter college, they said they would probably choose oriental medical school. However, the choice of reentering oriental medical school was lower than that of western medical school.

**Conclusion:** This study has also statistically determined the current issues that may pose conflicting views on the part of the respondents. A periodic study such as this one will hopefully aid in establishing policies for oriental medicine.

**Key Words :** Policy present condition, Oriental medical doctor, Oriental medicine institution.

## 서 론

오늘날 격변하는 의료현장에서 한의계는 다양한 정책 변화를 요구받거나 요구하는 현안이 대

두되어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한의계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었거나 또는 현대의학 체계의 모방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들로 현 한의계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의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한 의사협회도 이런 현안들에 대해 각 한의사 회원 간에 의견의 다양성으로 하나의 정책으로 결집하기가 힘들고, 또 한의계 자체의 역량으로는 해결 할 수 없거나 외부 이익단체나 정부와 충돌을 일으키는 정책 현안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의계

· 접수 : 2008년 3월 6일 · 채택 : 2008년 5월 13일  
· 교신저자 : 신현규,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제제연구부  
(Tel:+82-42-868-9464, Fax:+82-42-868-9471,  
E-mail:hkshin@kiom.re.kr)

를 구성하는 한의사들이 이러한 현안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한의계 내에 참여하게 대립되어 있는 한방전문의 비율, 한의약분업, 의료기 사지취권, 면허제도 통합, 직업에 대한 만족도 등 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조사가 현재 한의사들의 의견을 설문조 사하여 통계적으로 현황을 알아보는 일차적인 목 적이 있고, 또 이 결과가 여러 현안에 대한 갈등 요소를 해결하고, 국가 공공의료체계에서 보다 나 은 한의학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대상 및 방법

### 1. 조사 대상

본 조사는 한방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총 1000부의 설문지를 무작위로 발송 하여, 이중 응답한 150명(15%)의 설문 내용을 조 사 분석하였다.

### 2. 조사 및 분석 방법

설문기간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 31일 까지이며, 조사 항목으로는 일반 사항으로 응답자의 출생년도, 성별, 한의과대학 졸업 년도, 임상경력, 근무지, 수련의 과정 이수 여부, 현재 근무 직군에 대하여 설문하였고, 정책 문항으로는 한방전문의의 적정 비율, 한의약 분업 찬반 여부, 한의사의 의료기 사지취권 확보 여부, 미국 진출 의향, 면허제도 통합, 한의사로서의 직업 만족도 등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에 대 해 의사들과 비교하기위하여 청년의사 설문결과 를 참고하였다.

## 결 과

### 1.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1) 한방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인식도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1~40세로 응답한 인원이 68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41~50세인 40대가 58명(38.7%), 51~60세가 14명(9.3%)이었다. 평균 연령은 42.5세이고, 최연소자는 28세 최고령자는 73세였다.

2) 성별로는 남성이 129명(86%)이고 여성은 21명(14%)이었다.

3) 응답자 중에서 90~99년에 학교를 졸업한 사 람은 88명(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80~89년에 졸업한 사람도 38명(25.3%)이었다.

4) 진료경력에서는 11~20년 된 사람이 79명 (52.7%)이었으며, 1~10년인 사람도 49명(32.7%) 에 달했다. 의료경력의 평균 연수는 14.6년이고 1 년이 최소경력이며 최고 43년을 진료한 경력자도 있었다.

5) 응답자의 근무지역은 시 단위가 62명(41.3%) 으로 제일 많았고 광역시 단위가 그 뒤를 이어 42명(28%)이었다.

6) 수련의를 이수한 사람은 45명(30%), 미이수 인 105명(70%)이며, 수련기간은 3년인 사람이 25명(55.5%)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4년을 이수한 사 람도 13명(28.9%)이었다.

7)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개인 한의 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122명(81.3%)으로 절대 다 수를 차지하였고, 대학부속한방병원이 26명(17.33%)이며 한방병원은 2명(1.33%)이었다(Table 1).

**Table 1.** Social Characteristic of Respondent

변수 및 응답 범주		응답자수	비율(%)
연령	21~30세	3	2.0
	31~40세	68	45.3
	41~50세	58	38.7
	51~60세	14	9.3
	61~70세	6	4.0
	71~80세	1	0.7
성별	남	129	86.0
	여	21	14.0
졸업년도	60~69년	3	2.0
	70~79년	7	4.7
	80~89년	38	25.3
	90~99년	88	58.7
	00~07년	14	9.3
진료경력	1~10년	49	32.7
	11~20년	79	52.7
	21~30년	15	10.0
	31~40년	5	3.3
	41~50년	2	1.3
근무지역	서울특별시	34	22.7
	광역시	42	28.0
	시	62	41.3
	군	12	8.0
수련의 이수여부	미이수	105	70
	이수	45	30
수련기간	1년	3	6.7
	2년	1	2.2
	3년	25	55.5
	4년	13	28.9
	미기재	3	6.7
근무의료기관	대학부속한방병원	26	17.33
	한방병원	2	1.33
	한의원	122	81.33
합계		150	100.0

**Table 2.** Proper Ratio of Oriental Medicine Specialist as Whole Response.

전문의 비율	선택 인원수	비율(%)
20% 미만	70	48.3
20~40%	22	15.2
40~60%	18	12.4
60~80%	9	6.2
80% 이상	24	16.6
상관없음	1	0.7

**2. 한의사 전문의 적정 비율**

한의사 전문의 적정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는 70명(48.3%)이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80%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도 24명(16.6%)이었다. 20~40%, 40~60%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각각 22명(15.2%)과 18명(12.4%)로 나타났다. 이외에 상관없다는 응답과 해당 없다는 응답도 각각 1명(0.7%)으로 조사 되었다.(Table 2)

- 1) 전문의 이수 여부에 따른 한의사 전문의 적정 비율
- 응답자의 전문의 이수 여부에 따른 적정 한의

사전문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의 이수자 그룹에서는 적정 전문의 비율이 20%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50명(47.6%)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의 비이수자 그룹에서도 적정 전문의 비율이 20%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20명(44.4%)으로 가장 높았다.(Table 3)

- 2) 근무의료기관에 따른 한의사 전문의 적정 비율

응답자의 근무의료기관에 따른 적정 전문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대학부속한방병원 그룹에서는 적정 전문의 비율이 20%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10명(38.46%)으로 가장 높았고, 한의원

**Table 3.** Proper Ratio of Oriental Medicine Specialist by Specialist Course Completion Whether or not.

전문의 이수여부 적정 전문의 비율	선택 인원수/비율(%)	
	전문의 이수자	전문의 미이수자
20% 미만	50(47.6)	20(44.5)
20~40%	10(9.5)	12(26.7)
40~60%	14(13.4)	4(8.9)
60~80%	8(7.7)	1(2.2)
80% 이상	18(17.2)	6(13.3)
미기재	3(2.7)	2(4.4)
상관없음	2(1.9)	0(0.0)
계	105(100.0)	45(100.0)

**Table 4.** Proper Ratio of Oriental Medicine Specialist by Work Type of Medical Institution.

근무의료기관 전문의 비율	선택 인원수/비율(%)		
	대학부속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20% 미만	10(38.5)	1(50.0)	59(48.4)
20~40%	8(30.9)	1(50.0)	13(10.7)
40~60%	3(11.5)	0(0.0)	15(12.3)
60~80%	1(3.8)	0(0.0)	8(6.6)
80% 이상	3(11.5)	0(0.0)	21(17.2)
미기재	1(3.8)	0(0.0)	4(3.3)
상관없음	0(0.0)	0(0.0)	2(1.5)
계	26(100.0)	2(100.0)	122(100.0)

그룹에서도 적정 전문의 비율이 20%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59명(48.36%)으로 가장 높았다.(Table 4)

3) 진료 경력 기간에 따른 한의사 전문의 적정 비율

응답자의 진료 경력에 따른 적정 전문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10년 이하의 진료경력을 가진 그룹과 10년 이상을 가진 그룹 모두 20% 미만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각각 30명(61.22%)과 40명(39.60%)으로 조사 되었다. (Table 5)

4) 연령별에 따른 한의사 전문의 적정 비율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적정 전문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20% 미만이 가장 적당하다는 응답이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모두 높게 나왔는데, 각각 34명(55.74), 26명(38.81%), 10명(45.45%)이 나왔다. (Table 6)

3. 한의약 분업

한방 의료에서 진료권과 약업권을 분업하는 질문에서는 한의약 분업을 찬성하는 의견이 29명

**Table 5.** Proper Ratio of Oriental Medicine Specialist by Number of carrier.

진료 경력 전문의 비율	선택 인원수/비율(%)	
	10년 이하	11년 이상
20% 미만	30(61.2)	40(39.6)
20~40%	8(16.3)	14(13.8)
40~60%	3(6.2)	15(14.9)
60~80%	2(4.1)	7(6.9)
80% 이상	4(8.2)	20(19.8)
미기재	1(2.0)	4(4.0)
상관없음	1(2.0)	1(1.0)
계	49(100.0)	101(100.0)

**Table 6.** Proper Ratio of Oriental Medicine Specialist by Population by Age.

연령별 전문의 비율	선택 인원수/비율(%)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20% 미만	34(55.7)	26(38.8)	10(45.4)
20~40%	11(18.0)	9(13.4)	2(9.1)
40~60%	5(8.2)	12(17.9)	1(4.6)
60~80%	2(3.3)	5(7.5)	2(9.1)
80% 이상	8(13.1)	10(14.9)	6(27.2)
미기재	0(0.0)	4(6.0)	1(4.6)
상관없음	1(1.7)	1(1.5)	0(0.0)
계	61(100.0)	67(100.0)	22(100.0)

(19.3%)으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의견인 121명 (80.7%) 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Table 7)

#### 4. 의료기사 지휘권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47명(98.7%), 불필요하다는 의견 2명(1.3%)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필요없다라는 의견도 1명(0.7%) 있었다.(Table 8)

#### 5. 면허제도 통합(독립적인 한방진료가 인정되고 면허제도상 통합되는 의사면허를 전제로 설문)

한의학과 의학간의 면허제도 통합에 관한 질문에는 미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149명이 응답하였는데, 면허제도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이 86명(57.7%)으로 면허제도 통합을 반대하는 63명(42.3%)보다 많았다.(Table 9)

**Table 7.** Separation of Oriental Herb Medicine from Oriental Medicine Approval and Reverse.

찬반 여부	선택 인원수	비율(%)
찬성	29	19.3
반대	121	80.7

**Table 8.** Command Authority Necessary of Medical Technician.

필요여부	선택 인원수	비율(%)
필요	147	98.7
불필요	2	1.3

**Table 9.** Approval about License System Integration and Reverse.

찬성 여부	선택 인원수	비율(%)
찬성	86	57.7
반대	63	42.3

**Table 10.** Approval about License System Integration and Reverse by carrier.

진료경력 찬성 여부	선택 인원수/비율(%)	
	10년 이하	11년 이상
찬성	24(49.0)	62(61.4)
반대	24(49.0)	39(38.6)
미기재	1(2.0)	0(0)
계	49(100.0)	101(100.0)

1) 진료 경력

면허제도 통합을 묻는 질문을 진료기간 경력별로 분류를 해보면 10년 이하에서는 찬성이 24명(48.98%) 반대가 24명(48.98%) 미기재가 1명이었고, 11년 이상에서는 찬성이 62명(57.7%), 반대가 39명(42.3%) 이었다.(Table 10)

2) 연령별

연령에 따른 면허제도통합의 찬반 응답은 30대 이하에서 찬성이 36명(59.02%), 40대에서 39명(58.21%), 50대 이상에서 11명(50%) 이었다.(Table 11)

6. 해외 진출 의향

미국 NCCAOM 시험에 응시하여 침구사나 동양의학요법사로 해외 진출을 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진출의향이 없다 107명(72.3%), 진출의향이 있다 41명(22.7%)으로 응답하였다.(Table 12)

7. 타 직종으로의 전환 고려

한의사가 아닌 타 직종으로의 이직 전환을 고려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직종의 전환을 고려한 적이 없다는 질문이 110명(73.8%)으로 타 직

**Table 11.** Approval about License System Integration and Reverse by Population by Age.

연령별 찬성 여부	선택 인원수/비율(%)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찬성	36(59.0)	39(58.2)	11(50.0)
반대	24(39.4)	28(41.8)	11(50.0)
미기재	1(1.6)	0(0)	0(0)
계	61(100.0)	67(100.0)	22(100.0)

**Table 12.** Advance in the USA

진출 의향	선택 인원수	비율(%)
있다	41	27.7
없다	107	72.3

**Table 13.** Advance Intention by Occupation conversion

전환 고려	선택 인원수	비율(%)
전환	39	26.2
비전환	110	73.8

종으로의 이직 전환을 고려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39명(26.2%)보다 많았다.(Table 13)

1) 진료 경력

진료 경력에 따른 직종전환을 묻는 질문에는 10년 이하의 진료 경력에서는 35명이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11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75명이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Table 14)

2) 연령

직종전환에 대하여 연령별로 구분을 한 결과로는 30대 이하에서 44명(72.13%)이 직종 전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40대에서는 46명(68.66%), 50대 이상에서는 20명(90.91%)

이 직종 전환을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5)

8. 직종 전환 시 선택할 직종

한 의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경우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는 응답에는 연구원이 5명(3.3%)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업 3명(2%), 교수 2명(1.3%), 공무원, 심리상담사, 벤처기업, 펀드 매니저, 쇼핑몰, 음식점 등의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9. 대학을 다시 입학하게 될 경우 전공 선택

대학을 다시 입학하게 되면 어떤 전공을 공부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미응답자가 7명 이었으며

Table 14. Existence or Nonecistence Occupation conversion to carrier.

진료경력 찬성 여부	선택 인원수/비율(%)	
	10년 이하	11년 이상
생각해 봤음	14(28.6)	25(24.7)
생각해 본 적 없음	35(71.4)	75(74.3)
미기재	0(0)	1(1.0)
계	49(100.0)	101(100.0)

Table 15. Existence or Nonecistence Occupation conversion to Population by Age

연령별 찬성 여부	선택 인원수/비율(%)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생각해 봤음	17(27.9)	21(31.3)	1(4.5)
생각해 본 적 없음	44(72.1)	46(68.7)	20(91.0)
미기재	0(0)	0(0)	1(4.5)
계	61(100.0)	67(100.0)	22(100.0)

Table 16. Major that want to select Readmission an University.

전공	인원수	비율(%)
한 의과대학	57	39.9
의과대학	28	19.6
치과대학	23	16.1
한 의과대학+의과대학	1	0.7
기타	34	23.8
계	143	100.0



응답자 143명 중에서 다시 한의과대학을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이 57명(39.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의과대학이 28명(19.6%)로 그 다음이었고 치과대학은 23명(16.1%)이었다.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을 같이 다니겠다는 의견도 1명(0.7%)있었고 기타의 의견도 34명(23.8%)이 있다.(Table 16)

### 고 찰

1960년대 이후 큰 제도적인 변화 없이 이어져 온 한의학 의료체계들이 복잡한 주변 환경에 의해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의 변화는 같은 동질의 이익집단인 한의계 내부에서도 갈등과 이견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들 한의사들이 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설문조사하였다.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1~40세로 응답한 인원이 68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41~50세인 40대가 58명(38.7%), 51~60세가 14명(9.3%)이었다. 평균 연령은 42.5세이고, 최연소자는 28세 최고령자는 73세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129명(86%)이고 여성은 21명(14%)이었다. 응답자 중에서 90~99년에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88명(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80~89년에 졸업한 사람도 38명(25.3%)이었다. 진료경력에서는 11~20년 된 사람이 79명(52.7%)이었으며, 1~10년인 사람도 49명(32.7%)에 달했다. 의료경력의 평균 연수는 14.6년이고 1년이 최소경력이며 최고 43년을 진료한 경력자도 있었다. 응답자의 근무지역은 시 단위가 62명(41.3%)으로 제일 많았고 광역시 단위가 그 뒤를 이어 42명(28%)이었다. 수련의를 이수한 사람은 45명(30%), 미이수인 105명(70%)이며, 수련기간은 3년인 사람이 25명(55.5%)으로 절반을 넘었으

며 4년을 이수한 사람도 13명(28.9%)이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의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122명(81.3%)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대학부속한방병원이 26명(17.33%)이며 한방병원은 2명(1.33%)이었다.

한 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한의계내 각 단체 간의 입장차이가 많아 현재까지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sup>1)</sup>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다양한 설문으로, 한 의사 전문의 적정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는 70명(48.3%)이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80%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도 24명(16.6%)이었다. 전문의 이수 여부에 따른 한 의사 전문의 적정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의 이수자 그룹에서는 적정 전문의 비율이 20%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50명(47.62%)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의 비이수자 그룹에서도 적정 전문의 비율이 20%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20명(44.44%)으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근무의료기관에 따른 적정 전문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대학부속한방병원 그룹에서는 적정 전문의 비율이 20%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10명(38.46%)으로 가장 높았고, 한의원 그룹에서도 적정 전문의 비율이 20%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59명(48.36%)으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진료 경력에 따른 적정 전문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10년 이하의 진료 경력을 가진 그룹과 10년 이상을 가진 그룹 모두 20% 미만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각각 30명(61.22%)과 40명(39.60%)으로 조사 되었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적정 전문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20% 미만이 가장 적당하다는 응답이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모두 높게 나왔는데, 각각 34명(55.74), 26명(38.81%), 10명(45.45%)이 나왔다.

임<sup>2)</sup>이 보고한 한 의사의 전문의에 관한 한 의사들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상적인 전문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서는 10% 이하가 186명(30.9%), 10%

~ 20% 미만 162명(26.9%), 20% ~ 30% 미만 47명(7.8%), 30% ~ 40% 미만 10명(1.7%), 40% ~ 50% 미만 16명(2.7%) 50%이상 87명(14.5%),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93명(15.5%)로 조사되었다. 이를 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한의사전문의 비율을 20% 미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의약에서 진료권과 약업권을 분리하는 한의약 분업에 대해 한의사들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121명(80.7%)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한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상대 단체인 대한한약사회가 꾸준히 요구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 정책에 대해 실시 이전에 국민적 합의와 이해단체간의 의견이 이루어진 뒤 추진되어야한다는 입장이며, 현재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sup>3)</sup>

한의사의 의료기사지휘권의 필요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47명(98.7%), 불필요하다는 의견 2명(1.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어렵다는 의견도 1명(0.7%) 있었다. 이는 청년의사<sup>4)</sup>신문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 질문에 한의사의 의료기사지휘권에 찬성 9명(19.15%), 반대 37명(78.72%), 모르겠다 1명(2.13%)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양 이익 단체 간에 인식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제도 통합에 관한 질문에는 149명이 응답하였는데, 면허제도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이 86명(57.7%)으로 면허제도 통합을 반대하는 63명(42.3%)보다 많아, 앞으로 이 문제가 한의계 내부에서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면허제도 통합을 묻는 질문을 진료기간 경력별로 분류를 해보면 10년 이하에서는 찬성이 24명(48.9%) 반대가 24명(48.9%)이었고, 11년 이상에서는 찬성이 62명(57.7%), 반대가 39명(42.3%) 이었다. 연령에 따른 면허제도통합의 찬반 응답은 30대 이하에서 찬성이 36명(59.0%), 40대에서 39명(58.2%), 50대 이상에서 11명(50%)이었다.

한의사들이 미국 NCCAOM 시험에 응시하여 해외 진료를 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진출의향이 없다는 의견 107명(72.3%)으로 많아 한의사들이 해외 진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청년의사<sup>4)</sup>가 의사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의향을 묻는 질문에,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싶다고 대답한 의사가 74.7%로 나타나, 한의사의 해외진출의향은 많지 않으나 의사의 경우 해외진출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선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여러 다양한 질문을 하고, 이와 관련된 의사대상의 설문결과와 비교하였다. 한의사가 아닌 타 직종으로의 이직 전환을 고려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직종의 전환을 고려한 적이 없다는 질문이 110명(73.8%)으로 타 직종으로의 이직 전환을 고려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39명(26.2%)보다 많았다. 이는 2006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이직에 대해 조사한 결과, 66.9%는 타 분야 진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sup>4)</sup>, 직업 만족도가 한의사가 의사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진료 경력에 따른 직종전환을 묻는 질문에는 10년 이하의 진료 경력에서는 35명(32.7%)이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11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75명(67.3%)이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직종전환에 대하여 연령별로 구분한 결과로는 30대 이하에서 44명(72.13%)이 직종 전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40대에서는 46명(68.66%), 50대 이상에서는 20명(90.91%)이 직종 전환을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의사이외의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경우,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는 응답에는 연구원이 5명(3.3%)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업 3명(2%), 교수 2명(1.3%), 공무원, 심리상담사, 벤처기업, 펀드 매니저, 쇼핑몰, 음식점 등의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설문대상 한의사들에게 대학을 다시 입학하게

되면 어떤 전공을 공부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응답자 143명 중에서 다시 한의과대학을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이 57명(39.9%)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의과대학이 28명(19.6%), 치과대학은 23명(16.1%)이었다.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을 같이 다니겠다는 의견도 1명(0.7%)있었고 기타 의견에서는 법학이 5명(3.5%), 경영학이 4명(2.8%), 교대사범대가 3명(2.0%), 미술학과가 2명(1.4%)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청년의사<sup>4)</sup> 신문이 동일 질문으로 설문해 응답한 총 263명의 의사들 중 ‘다시 의대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55명(59.9%)이었으며, ‘다시 의대에 지원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사람도 응답자의 40%가 넘는 10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사들이 의사보다 다시 입학할 경우, 본인 전공공목을 다시 선택할 확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의사의 현재 직업 만족도는 높은 반면, 재입학에 대한 설문에는 직업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사의 의대 지원율에 비하여 한의대 지원율이 낮게 나타나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 이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결론

한방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 150명에 대한 정책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한의사 전문의 적정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70명(48.3%)이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한의약 분업에 대해서는 121명(80.7%)이 반대하였으며,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휘권이 필요하다는 147명(98.7%)이 찬성하였다.

2. 미국 NCCAOM 시험에 응시하여 해외 진출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72.3%로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한의사-의사 면허제도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이 86명(57.7%)으로 과반수의 응답자가 찬성하였다.
3. 한의사의 직업 만족도 조사에서, 타 직종으로의 직종 전환을 고려한 적이 없다는 질문이 110명(73.8%)으로 조사되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의사보다 높았다.
4. 한의사이외의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경우 연구원을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나, 다시 대학입학을 하면 한의과대학을 또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39.9%)이 높았지만, 의사의 의과대학 재입학 비율(59.9%)보다는 낮았다.

## 참고문헌

1. 한의신문. [cited 2007 June 29] Available from: URL:<http://www.akomnews.com/>
2. 임병목. 한의사전문의 적정 인력 수급 등을 위한 표준화 연구. 보건복지부. 2004;141-147
3. 민족의학신문. [cited 2004 October 08] Available from: URL:<http://www.mjmedi.com/>
4. 청년의사. [cited 2006 December 04, 2006 December 14] Available from: URL:<http://www.docdocdoc.co.kr>